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등 음악 수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김 선 미*

본 논문은 최근 범교과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음악적 체험을 구조화하고 가시화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는 중등 음악수업 지도를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글쓰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효과, 음악 수업에의 활용, 학문적 글쓰기 유형에 관하여 논의하고 중등 음악 수업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 영역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유형을 구안하여 실제 음악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음악 수업 중의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적 창의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보다 능동적이고 인지적인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주제어 :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학문적 글쓰기, 중등음악교육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글쓰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2.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용
3. 학문적 글쓰기 유형

III.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의 실제

1.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 전략
2. 글쓰기를 활용한 영역별 교수-학습 지도안

IV. 결론

* 연세대학교 강사(ksunmie@hotmail.com)

I. 서론

최근 들어 글쓰기 교육은 범교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비단 대학 입시 논술 준비를 위한 글쓰기 교육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범 교과 글쓰기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를 교양과목에서 뿐 아니라 전공과목 혹은 다른 일반 교양 선택 과목에 글쓰기를 연계하며 가르치고 있다(이재성, 김은영, 2010, 118).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이 ‘범 교과 글쓰기’는 전공 교수가 자신의 수업 과정 안에 글쓰기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전공 학습(혹은 특정한 교양과목 학습)과 더불어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교육 방식이다(원만희, 2009, 161). 글쓰기 과정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학문적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지적 학습을 얻어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각 교과의 글쓰기 교육 방법의 도입의 필요성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음악교과는 어떠할까? 얼핏 생각하면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활동위주의 음악 수업에서 글쓰기 교육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수업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학습의 부분적으로나마 활용되어 왔다. 음악적 개념과 지식과 같은 인지적 영역에서 활용되었던 짧은 글쓰기부터 감상활동지와 학습지나 보고서에서 쓰여 지는 긴 글쓰기까지 단계별로 사용이 되어진다. 음악수업에서의 글쓰기는 이해, 분석, 설명 등의 학생의 인지적 학습을 도와주고 심미적 체험에 대한 느낌과 표현을 보다 구조화하고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가창과 기악 같은 연주활동에서도 각자의 연주 진행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학습 진행을 계획 및 수정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히 감상 수업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음악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정리 및 내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교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과학이나 역사, 체육과 같은 다른 과목에서의 글쓰기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고력을 개발하며 학습효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문창로, 2005; 강영수, 박대권, 2009; 박선양, 2010). 음악교과에 대한 글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이지현(2003)의 논문이 유일한데, 이지현(2003)은 예술적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음악적으로 경험한 것을 글쓰기라는 사고 작용에 의해 구조적으로 체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수업 중의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p.8). 다른 교과에서와 같이 음악 수업에서도 글쓰기 활용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음악수업에서의 글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학교 음악 수업에서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각 활동 영역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글쓰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학문적 글쓰기 유형을 알아보고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기초한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동에 대하여 논의 하여 이것을 토대로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지도안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각각의 활동 영역에서 글쓰기를 통하여 가사와 음악과의 연관성, 음악이 주는 감동과 느낌의 표현, 창작의 과정에 대한 성찰, 음악의 느낌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체험하여 음악 수업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거두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글쓰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쓰기교육은 최근에 와서 학문적 목적을 위한 쓰기교육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대학에서 교양과목에서의 글쓰기 수업이 아닌 전공과목 혹은 다른 교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가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 대학 교과과정에의 도입이 점차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WAC는 학제 간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글쓰기 교육과 전공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이나 교양과목과 함께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교수-학습방식이다(원만희, 2009: 161). 이러한 배경에는 언어와 학습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글쓰기가 우리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진행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우리의 사유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며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게 하고 현재의 사고를 계속 전개해 가도록 유도하게 한다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학문적 사고(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수용, 사고의 활성화와 확대로서 그 자체가 능동적인 학습 양식이다(원만희, 2009: 166-67).

대학 뿐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 교육에서도 점차 글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입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글쓰기 교육 뿐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보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특별히 과학 학습에서 과학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 글쓰기(배희숙, 전영석, 홍준의, 2009), 과학적 사실, 개념, 원리, 법칙 등에 대해 사고하고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학습 능력의 향상과 과학적 사고력을 도모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희숙, 전영석, 홍준의(2009)에 따르면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과학 과목에서 글쓰기 훈련은 비판력, 분석력, 종합력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개발할 수 있고 탐구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과학 탐구 활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p.185).

과학 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분야에서도 글쓰기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 도구로 제시되었다(문창로, 2005: 강영수, 박대권, 2009: 박선양, 2010). 문창로(2005)는 역사적 인물 탐구를 통한 ‘역사 글쓰기’를 활용한 역사과목 교수학습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글쓰기를 통한 역사적 인물의 삶과 사회상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 및 창의력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활동 인물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고력, 비판력 등 역사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p.279). 강영수, 박대권(2009)은 체육시간의 글쓰기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체육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획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지식 창조 과정의 경험을 탐색해 보도록 하였다 (p.23).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하게 반응하였으나 점차 글쓰기에 익숙해지면서 글쓰기를 통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얻게 되었고 단순한 운동 기능 학습에서 움직임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위의 연구들에서 본 바와 같이, 글쓰기는 각 학과의 영역별로 학습내용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사고력과 비판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워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내용에 맞는 합리적이고 흥미로운 글쓰기를 시도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교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 수업에서 글쓰기 활용

음악은 연주 혹은 창작을 하는 자와 감상 하는 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우리는 음악 활동의 다양한 경로에서 언어와의 연관성을 목격할 수 있다. 언어로 음악을 표현하고 언어적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클라크(Ann Clark)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음악은 언어라고 주장하였는데 첫째는 예술의 한 분야인 음악도 언어와 같이 표현의 한 방법이고 둘째는 음악은 기호학적 체계이며, 셋째로는 음악과 언어 모두가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체계이며, 넷째로 음악이 언어와 같이 특별한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특정 대상을 묘사한다고 하였다 (이석원, 2002, 162).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갖는 음악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가사와 음악과의 결합체인 가곡에서 볼 수 있다. 가곡에서 가사(언어)는 음악을 음악은 가사(언어)를 표현하는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을 연주자 뿐 아니라 청취자들도 경험 할 수 있다. 김기수

(2008)는 시가 시어와 운율에 의해 인간의 감정과 미적 상태를 전달하는 것 같이, 음악은 음과 리듬의 패턴에 의해 인간의 감정과 미적 상태를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하였다(p.10). 이러한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음악을 다루고 배우는 음악 수업에서의 언어의 활용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음악을 통해 발생하는 각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음악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박진홍, 2008, 17). 음악적 느낌의 언어적 표현은 학생들의 심미적 경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개인의 내면을 표현화하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음악 수업에서의 언어 영역의 활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질 수 있다. 박진홍(2008)은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 연구하며 음악 수업에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학습 진행에 필수적 요소이고,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의 도구이며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표현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음악에 대한 언어표현은 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임을 강조하였다(18).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는 언어 영역의 활용은 음악 학습 뿐 아니라 언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많은 연구가 리듬 첸트, 가창, 음악 감상 등의 경험이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최미영, 2010, 44). 이러한 상호관의 긍정적 영향에 기인하여 최미영(2010)은 그의 연구에서 음악과 언어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음악과 언어지식, 아동문학을 활용한 음악학습, 표제음악 감상과 언어학습을 제안하였는데 읽기, 말하기, 쓰기, 토의하기 등의 다양한 언어적 영역 활동을 음악 학습에 활용한 예시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 수업에서 언어 활동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음악 수업에서 언어 활동 중의 하나인 글쓰기 활동은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글쓰기는 작은 부분이나마 음악 수업에서의 학습 도구로 쓰여 왔다.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지, 감상 학습지, 평가지에 쓰이는 글쓰기

들과 과제로 쓰이는 음악회 감상 보고서,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청각적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음악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며 내면적 느낌에 대한 표현을 통해 얻어진 학습을 구체화하고 가시화 할 수 있다.

음악학습에 효과적인 언어적 활동의 적용은 창작, 지각, 반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는 아트 프로펠(Art PROPEL)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아트 프로펠은 설문지, 인터뷰, 음악일지, 평가 질문지 등과 같은 언어적 반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 학습의 과정을 개발시키고 있다(Gardner, 2007). 창작과 지각과 반성의 활동에서 언어적 기록을 통하여 재학습되고 또한 학습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평가되어진다. 이것은 음악 학습 역시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며 사고의 진행과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하여 글쓰기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는 음악 수업에서 학습되어야 할 미적 체험과 개념의 이해, 연주의 반성, 혹은 창작의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음악과 언어의 긴밀한 관계와 상호 협력적인 작용이 음악 수업에서 긍정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고 언어 영역의 한 부분인 글쓰기 활동은 다른 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음악 활동의 체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언어를 통하여 학생들의 표현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트 프로펠 프로그램에서처럼 창작, 지각, 반성 활동을 도와 음악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것이다. 무엇보다 글쓰기 활동은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3. 학문적 글쓰기 유형

글쓰기의 유형은 그 목적과 상대에 따라 광범위하고 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1 교육과정의 국어과목 쓰기활동의 내용에는 다양한

목적의 글 쓰기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로는 설명, 보고, 기사, 소개, 안내, 초대 등의 글이 있고 설득을 위한 글쓰기로는 논설, 연설, 광고 등이, 친교를 위한 글쓰기는 편지, 정서표현을 위한 글쓰기에는 생활, 감상, 상상편지, 일기, 수필 등이 있다(서창원, 2008). 김선민(2008)은 그의 연구에서 학문적 글쓰기의 텍스트 유형으로서 요약문, 설명문, 설득문, 논설문, 논증문, 창의문이 있고 이러한 유형들은 재생적 표현, 이해적 표현, 적용적 표현, 분석적 표현, 평가적 표현, 창의적 표현의 표현구조와 사실적 내용, 개념적 내용, 절차적 내용, 메타적 내용의 내용 구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글쓰기가 학문적 목적으로 일반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 중 과학에서의 글쓰기 유형(배희숙, 전영석, 홍준의, 2009)을 참고하면 크게 설명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가 있다. 또한 이 네 가지의 큰 범주 아래 27가지의 글쓰기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특별히 음악과에서 활동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유형은 비판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들 수 있다(<표 1>).

<표 1> 과학 글쓰기 유형(배희숙 외, 2009)

범주	글쓰기 유형
설명적 글쓰기	-관찰하여 글쓰기 -분류하는 글쓰기 -요약하는 글쓰기 -그림, 사진,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글쓰기 -실험도구, 방법, 결과를 설명하는 글쓰기 -개념, 법칙을 설명하는 글쓰기 -실험을 묘사하는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과학 원리로 해석하는 글쓰기 -문제 해결하는 글쓰기 -근거 찾아쓰기 -완성하는 글쓰기 -과학속담, 사자성어 해석하는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과학 오류를 찾아쓰기 -사실과 의견(가치)을 구분하는 글쓰기 -다양한 관점에서 글쓰기 -대화문 완성하는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상상하여 글쓰기 -일기형식으로 글쓰기 -노래가사 바꿔쓰기 -과학자에게 편지쓰기 -극본으로 바꿔쓰기 -인터뷰 형식으로 쓰기 -만화로 나타내기 -짧은 글 확장하여 글쓰기 -마인드맵 글쓰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는 주로 감상영역에서 작품이나 음악회, 음악사의 시대별 음악에 대한 글쓰기가 가능하겠고 또한 가창이나 기악활동에서도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연주 비평, 혹은 자아성찰 적인 연습일지쓰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창의적 글쓰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데 가창에서의 노랫말 짓기부터 음악과 연관되는 이야기 쓰기 등 감상과 창작 영역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음악교과에서의 글쓰기를 활용한 이지현(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와 지도서를 분석하여 음악 수업에서의 활용되는 글쓰기 유형을 제시하였다(<표 2>).

<표 2> 우리나라의 단계별 글쓰기 유형 (이지현, 2003)

단계 학년	중급(단문)	고급(장문)
중 1	가사짓기(가창) 비교하기(감상) 소감쓰기(감상) 시 짓기(창작) 이야기 만들기(창작, 감상) 조사하기(가창, 감상) 평가 소감 쓰기(가창, 기악, 창작)	감상문 쓰기(감상) 계획서 쓰기(기악) 보고서 쓰기(창작) 서술하기(가창, 감상)

중 2	가사짓기(가창, 창작) 비교하기(가창, 감상) 소감쓰기(감상) 이야기 만들기(창작, 감상) 조사하기(가창, 감상, 이해) 특징쓰기(감상) 평가 소감 쓰기(가창, 기악, 창작)	감상문 쓰기(감상) 서술하기(감상, 이해)
중 3	가사짓기(가창, 창작) 메모하기(감상) 비교하기(가창, 감상) 소감쓰기(창작) 이야기 만들기(창작, 감상) 조사하기(가창, 감상) 특징쓰기(가창) 평가소감쓰기(가창, 기악, 창작)	감상문 쓰기(감상) 계획서 쓰기(창작) 논술하기(이해) 보고서 쓰기(가창, 창작, 감상) 비평문 쓰기(가창) 서술하기(감상, 이해) 일지쓰기 (창작)

<표 2>을 보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는 음악 학습 전 영역에 걸쳐 글쓰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짧은 단어 나 단문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장문을 필요로 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유형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실제 음악 수업에서 쓰여 질 수 있는 글쓰기의 다양한 유형은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사나 이야기 짓기와 같은 창의적인 글쓰기부터 비평문, 감상문과 같은 논술적인 글쓰기, 또한 평가나 일지 같은 반성적 글쓰기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글쓰기의 도입은 자칫 지루함을 초래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수업에서의 글쓰기는 흥미로워야 하고 현실감과 실용도가 있으며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되어 음악 학습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현(2003)의 연구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여러 단계의 글쓰기 유형들 중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음악 수업에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에 맞는 활동을 정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음악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Ⅲ.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의 실제

1.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 전략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여러 유형의 학문적 글쓰기 중에서 음악 수업의 활동 영역에 적합한 글쓰기는 비판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수업 지도안 개발의 4개의 영역 중 가창과 감상 영역에서는 창의적 글쓰기를, 기악과 창작에서는 비판적 글쓰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가창 영역에서는 가사 짓기, 기악 영역에서는 비평문 쓰기, 창작 영역에서는 일지쓰기, 감상 영역에서는 이야기 쓰기의 활동을 구안하였다(<표 3>).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지도 방안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에 적합한 글쓰기 유형은 학습에 흥미를 주고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쓰기 활동을 위한 활동지를 제시하여 각 영역의 음악 학습과 잘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관점을 제시하였다.

<표 3> 음악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영역	글쓰기 유형	활동 내용
가창	창의적 글쓰기: 노래 가사 짓기	주제와 음악에 맞는 노랫말을 지어 발표하기
기악	비평적 글쓰기: 기악 연주 동영상을 보고 비평문 쓰기	음악 전문 기자가 되었다 가정하고 연주 실황 동영상을 보고 기사문을 작성한다.
창작	비평적 글쓰기: 계획, 수행, 반성을 포함한 창작일지 쓰기	조별로 주제에 맞는 음악을 창작하여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계획, 수행, 반성을 포함하는 일지를 작성한다.
감상	창의적 글쓰기: 악곡의 느낌과 정서에 맞는 이야기 만들어 쓰기	주어진 음악을 듣고 곡의 느낌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곡에 쓰여질 이야기 만들어 쓰기

가창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는 노래 가사를 짓는 활동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원곡을 정하여 배운 뒤 그 곡의 주제에 맞게 다른 가사를 써보는 것으로 곡의 의미와 느낌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다르게 표현 할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기악 영역에서는 기악 연주 동영상을 관람하고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음악전문 기자가 되어 연주에 대한 기사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악곡의 종류, 작품, 연주, 연주자, 공연문화 등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관찰을 유도할 수 있다. 기악 음악에 대한 이해와 악기와 연주법에 대해서도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글을 생각하여 쓰는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의 생활화 측면에서도 공연 관람에 대한 태도와 음악을 즐기고 향유하는 태도관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작 영역에서의 글쓰기는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지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모듬별로 학교 홍보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을 담은 글쓰기로서 창작 계획, 의도, 역할 분담, 진행과정, 반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작과정을 이해하고 반성과 평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상 영역에서는 작품에 대한 느낌과 정서를 언어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심미적 체험을 구체화하고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적 색채와 느낌에 맞는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만들고 감상했던 작품은 어떤 장면의 배경음악이 되는 지 정하여 발표하고 무엇보다 음악의 어떤 요소가 어떤 장면의 이야기가 되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하여 표현적 메시지를 담은 표제음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또 음악적 느낌에 대한 언어적 표현 등을 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영역의 글쓰기 활동은 모듬별로 진행하여 마지막에 발표와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각각의 영역 별 지도안은 1차시 혹은 필요에 따라 2차시로 진행 할 수 있다. 글쓰기 활동은 항상 음악 활동과 함께 병행하도록 하여 지루함을 방지하고 교사는 글쓰기 활동을 위한 활동지를 준비하여 수업 중에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를 통한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관점도 제시하였다. 수업을 위한 제재곡 및 주제는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것으로 선택하여 실제 수업과 관련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창 제재곡은 “즐거운 나의 집”, 기악 연주 동영상은 하이든 실내악 “황제”, 창작은 ‘우리 학교 홍보 노래 만들기’, 감상곡은 드뷔시의 ‘달빛’을 사용하였다(<표 4>).

<표 4> 글쓰기를 활용한 영역별 활동 제재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즐거운 나의 집	하이든 “황제” 공연 동영상	우리학교 광고 노래 만들기	드뷔시 “달빛”

2. 글쓰기를 활용한 영역별 교수-학습 지도안

1) 가창 영역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단원	즐거운 나의 집
목표	- 원곡의 리듬과 가락에 맞춰 새로운 가사를 만들 수 있다 - 새로운 가사쓰기를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곡의 의미와 느낌을 심도 깊게 체험한다.
내용	창의적 글쓰기- 노래 가사 만들기
자료	악보, 활동지
활동	1. ‘즐거운 나의 집’ 원곡의 가사를 음미하며 불러보기 2. 모둠별로 ‘나의 집’에 대한 느낌, 떠오르는 단어 등을 토론했다 3. 토론했을 바탕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란 제목으로 새롭게 가사 만들어 쓰기 4. 즐거운 나의 집 원래 가락에 맞추어 다듬기 5. 새로운 가사로 된 노래 불러보기 6. 연습한 곡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평가하기

글쓰기 활동지

<‘즐거운 나의 집’ 주제로 가사를 써 봅시다!>

- ▶ “즐거운 나의 집”의 가사와 음악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 ▶ 각자 자신의 집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나의 집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 원곡의 가락에 맞춰 새롭게 가사를 만들어 봅시다.
- ▶ 새로 쓴 가사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봅시다.

평가관점

- ▶ 창작한 가사는 가락과 리듬에 잘 맞나요?
- ▶ 가사의 내용은 주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나요?
- ▶ 가사와 음악이 잘 조화를 이루나요?

비교적 친숙하고 어렵지 않은 ‘즐거운 나의 집’의 노래에 새로운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을 가창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주제도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여 어렵지 않게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활동으로 먼저 ‘즐거운 나의 집’을 듣고 부르기를 반복하여 익숙하게 부를 수 있게 한 후 곡의 느낌에 대하여 가사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한다. 또한 가사의 내용과 음악의 가사표현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본다. 즐거운 나의 집과 가족에 대한 가사를 창작하면서 음악적 표현과 함께 보다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에 대한 체험과 그 둘의 결합에 대하여 체험하게 한다. 모둠별로 토의와 가사 창작의 시간을 갖고 만든 곡을 연습한 뒤 발표를 하고 만들어진 가사가 원곡의 가락과 리듬에 잘 맞는지, 주제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가사와 음악이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평가 토론해 본다.

2) 기악 영역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단원	하이든 “황제”
목표	- 실내악 공연을 감상하고 비평적인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 - 실내악 공연 동영상과 보고 기사쓰기를 통해 기악곡의 종류와 특색, 작품과 연주, 공연 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내용	비평적 글쓰기- 음악 공연 기사문 쓰기
자료	공연 동영상 자료(파일, DVD, 인터넷 사이트), 활동지
활동	1.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에 대하여 이해한다(교사 설명) 2. 공연 동영상을 관람 한다. 3. 모듬별로 공연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토론 한다. 4. 활동지를 활용하여 음악 전문기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기사문을 쓴다. 5. 모듬 별로 다른 공연 기사문을 작성해도 좋다. (추천 동영상: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베토벤 피아노 소타타 : “열정” 사라사테 바이올린 협주곡 “지고이네르바이젠” 6. 모듬별로 완성된 기사문을 발표하고 평가 한다.

글쓰기 활동지

<음악회 공연에 관한 기사문을 써 봅시다!>

- ▶ 음악 공연 작품은 무엇이고 연주자, 장소는 어디인가요?
- ▶ 연주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 전체적인 공연은 어떠했나요?
- ▶ 연주자의 기량은 어떠했나요?
- ▶ 연주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 ▶ 작품의 음악적인 특성은 어떠했나요?
- ▶ 연주를 보고 느끼고 생각한 점을 써 봅시다

평가관점

- ▶ 기사문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 ▶ 작품의 특성과 음악적인 느낌 등이 잘 표현되어있나요?
- ▶ 연주 공연 감상 후의 생각 등이 잘 정리되어 있나요?

학생들이 음악회나 공연을 감상 하는 것도 좋지만 연주 동영상은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주자들의 모습을 가까이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을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하이든의 황제는 실내악으로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의 관람 보다는 적은 수의 악기들로 이루어져 악곡의 형식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형성하고 있는 악기들의 각각의 특색과 음색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선행 활동으로 하이든 황제에 대한 곡과 실내악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학생들이 자신이 음악 전문 기자가 되었다 상상하고 기사문을 작성토록 해서 공연 기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공연 내용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 여건이 허락되면 모듬별로 다른 연주 동영상을 관람하여 기사문을 작성하게 하면 다양한 연주와 작품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문 발표 때는 공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작품과 연주에 대한 비평, 감상 후의 느낌과 생각 등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었는지 평가 지도한다.

3) 창작 영역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단원	우리학교 홍보 노래 만들기
목표	- 학교를 홍보하는 노래를 창작하면서 창작 과정을 담은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일지 작성을 통해 창작과정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다
내용	일지 쓰기-창작 계획, 진행, 반성 등의 과정을 담은 일지쓰기
자료	활동지, 오선지, 가락악기
활동	1. 모듬별로 우리학교 홍보 노래 만들기를 계획 한다 2. 노래의 가사를 만들기 위하여 토론 한다 3. 노래의 가락을 계획한 마디수와 박자를 기본으로 창작 한다 4. 창작한 가락에 가사를 맞추어 불러보고 수정 한다 5. 모듬별로 완성한 노래를 발표하고 평가 한다

글쓰기 활동지

<‘우리 학교 홍보 노래 만들기’ 창작 일지를 써 봅시다!>

- ▶ 모둠별로 학교 노래 창작을 위하여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봅시다.
 - 곡의 마디 수와 템포, 박자를 정해 봅시다.
- ▶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가사를 만들어 봅시다.
 - 모둠별 토론 내용을 포함 합니다.
- ▶ 가사에 맞는 가락을 만들어 봅시다.
 - 창작 과정을 포함 합니다.
- ▶ 완성된 노래를 연습해봅시다.
 - 잘된 점, 미흡한 점 등이 무엇인가요?
- ▶ 연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완, 수정 해 봅시다.
 - 새롭게 수정하고 첨가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 완성된 곡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평가 합니다.
 - 발표는 어떠했나요?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평가관점

- ▶ 일지는 창작의 전 과정을 잘 포함하고 있나요?
- ▶ 모둠별 토론내용과 시행착오 내용도 포함하고 있나요?
- ▶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일지는 창작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모둠별 창작 활동으로 학교 홍보 노래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창작의 전 과정을 자세히 적은 창작 일지를 작성하면서 창작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창작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창작의 과정을 담은 일지의 완성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교 홍보 노래 창작을 어렵게 느낀다면 교사가 기본적인 마디 수, 박자, 등을 정해 주고 비교적 단순하게 창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둠별로 완성된 노래를 발표하고 일지를 모두 완성하게 한 후 발표하게 한다. 일지가 창작의 과정을 자세히 잘 담고 있는지, 창작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나 느낀 점들을 반성하며 토론해 본다.

4) 감상 영역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단원	드뷔시“달빛”
목표	- 드뷔시의 ‘달빛’을 감상하고 음악의 느낌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써본다. - 음악극 이야기 쓰기를 통해 음악과 극(이야기) 관계를 이해한다.
내용	창의적 글쓰기- ‘달빛’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음악극의 이야기 만들기
자료	오디오(CD, 음악파일) 자료, 활동지
활동	1. 모둠별로 드뷔시의 ‘달빛’을 감상하고 느낌을 토론했다. 2. 떠오르는 느낌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 한다. 3. 이야기를 완성하여 글을 쓴다. 4. 음악의 어떤 부분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과 연관 있는지 연결지어본다. 5. 완성된 글을 발표하고 평가 한다.

글쓰기 활동지

<드뷔시 ‘달빛’에 맞는 이야기를 써 봅시다!>

- ▶ 드뷔시의 ‘달빛’을 듣고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토론했다
- ▶ 토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봅시다
- ▶ 이야기의 배경과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요?
- ▶ 이야기의 사건은 어떤 일인가요?
- ▶ 이야기의 처음- 중간- 결말을 완성해 봅시다
- ▶ 음악의 어떤 부분이 이야기의 어떤 장면과 연관이 깊은가요?
- ▶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음악의 어떤 느낌을 반영한 것인가요?
- ▶ 완성된 이야기를 발표하고 평가 합니다

평가관점

- ▶ 창작한 이야기는 잘 구성되었나요(배경, 사건, 발단, 전개, 결말)?
- ▶ 이야기는 감상한 음악의 느낌과 잘 어울리나요?
- ▶ 특정한 음악에서 연관되어지는 이야기 장면이 포함되었나요?
- ▶ 이야기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가요?

드뷔시의 '달빛'은 표제 음악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서 음악의 흐름이 '달빛'을 묘사하고 있다. 음악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이해하고 직접 그 음악에 어울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음악의 표현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활동으로 표제음악에 관하여 설명하고 표제적 성격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며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해 본다. 그리고 모둠별로 '달빛'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주는 느낌, 떠오르는 심상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 특히 음악의 어떤 인상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장면과 연관시켜 보도록 유도한다. 완성된 이야기를 발표 할 때는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낭송하게 하고 전체적인 음악과 이야기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발표 후 이야기의 구성과 독창성, 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토론 평가 한다.

IV. 결 론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용은 활동과 체험 위주의 수업 속에서 음악적, 미적 체험을 보다 구체화하고 언어적 표현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언어적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시켜주고 연주 중심의 활동에서 인지적 사고를 더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은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박진홍, 2008,16). 본 연구는 이러한 글쓰기의 효율성을 실제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등과정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창영역에서는 노래 가사 짓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고 원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사와 음악가의 관계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악영역에서는 연주 동영상을 보고 기사문 쓰기를 통하여 바른 관람 자세와 연주

비평능력을 기르고 기악음악의 형식과 특징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였다. 창작영역에서는 일지쓰기를 이용하여 작품 창작의 계획과 진행, 반성 등의 전 과정을 쓰면서 창작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영역에서는 이야기 쓰기를 통하여 음악적 감성과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성을 개발하고 표현적 메시지를 담은 표제음악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지도안과 더불어 글쓰기 활동을 위한 활동지와 글쓰기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각각의 영역에서 글쓰기 활동을 시도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은 음악 수업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 줄 것이고 학생들의 흥미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활용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활동 영역 외에 인지적 영역에 관한 글쓰기 활용 연구도 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영수, 박대권 (2009).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체조수업에서의 글쓰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5. 15-25.
- 강현자(2009). 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언어와 문화. 5. 1-22
- 교육과학기술부(2011).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김기수(2008). 가사의 미적 경험으로서의 가창표현. 음악교육연구. 34.1-23.
- 김선민(2008). 학문적 글쓰기의 유형, 구조, 지도단계. 한국초등국어교육. 38. 52-82.
- 김희정(2002). 청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문창로(2005). '역사 글쓰기'를 통한 史料학습의 접근방안. 중등교육연구. 53. 257-282.

- 박선양(2010).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교수방안 연구. 국어문학. 49. 175-196.
- 박정하(2007). 통합 교과형 논술과 논술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9. 65-87
- 박진홍(2008).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활용되는 음악의 언어표현 분석. 음악교육공학. 7. 15-30.
- 배희숙, 전영석, 홍준의(2009). 과학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 글쓰기 교수, 학습 전략 개발. 초등과학교육. 28. 178-186.
- 서장원(2008).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 교육학회지. 15 87-106
- 이석원(2002).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 이재성, 김은영(2010). 범교과적 글쓰기 (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연구. 국어교육연구. 47. 117-142.
- 이지현(2003).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원만희(2009). 왜 '범교과 글쓰기(WAC)인가?' 철학과 현실. 82. 161-175.
- 최미영(2010).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음악교육공학. 10. 41-56.
- 최인영(2007). 정규교과에서 통합논술 가르치기. 국어교육학연구. 29. 93-120.
- 한우리 (2010). 고등학교 통합교과논술 적용을 위한 미술 감상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Gardner, H. (2007). 예술교과에서의 수업설계와 평가. 김명희, 윤쌍웅 역. 서울: 문음사.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in Music Class Using Academic Writ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Kim, Sunmi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curriculum of music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cademic writing as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tool. Recently, WAC(Writing Across Curriculum) is widely uses in the class in various levels and subjects, as a powerful learning strategy. Through writing in music class, same as in other classes like science, history, students can develop their creativity as well as cognitivity. Writing activity can also help students structuralize and visualize their musical experiences as well as musical knowledges. In addition, writing can be reflected and examined student's musical activities so they can develop their critical thinking and ability of problem solving. Based on these merits, I provide four sessions of music lesson which are singing, performing, composing and listening as using writing activities in order to be helpful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I suggest creative writing activities in singing, and listening class with composing text for song and story for the listening music. And critical writing activities in playing and composing class with report for ensemble concert and journals for their composing process. With these writing activities, stu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music class and effectively develop their musical ability.

key words : Writing in Music Class, Academic Writing, Secondary Music Education

투고일: 6월 30일, 심사(수정): 7월 12일(8월 3일), 게재확정일: 8월 10일